최근 데뷔 남자 마마무 '브로맨스'

히트 작곡가 김도훈 이끄는 소속사 RBW 마마무 후속 그룹

'우리가 브로맨스라고/ 노래는 많고 많은데/ 들을 노래 하나 없다고/ 없기는 왜 없어/ 우리가 나왔는데/ 너의 그 재생 목록을 채워 줄 테니/ 자리를 비워둬'

최근 데뷔한 그룹 '브로맨스(VROMANCE)'의 첫 번째 미니앨범 '디 액션(THE ACTION)', 그중에서도 첫 번째 트랙 '인트로듀스(Introduce)'다.

브로맨스는 '문제의 정답 바로 우리가 될 테니까'라며 당당하고 패기 넘치는 자기소개서를 들이밀었다.

"의미 있는 트랙이에요. 제가 작업하기도 했고요. 데뷔 앨범이니까 욕심이 좀 있어서,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20초 정도로 짧게 만들어서 들려 드리니까 좋다고, 길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넣게 됐어요. 가사를 직접적으로 썼거든요. 나는 박현규이고, 우리는 이런 음악을 해. 지금까지 못 봤던 걸 보여 줄게. 이렇게요."(박현규)

2013년 5월 처음 만난 4명이 멤버 교체 한 번 없이 4년을 함께했다. "호소력 짙고 솔플한 발라드와 R&B"(박장현), "끈적한 R&B"(이현석), "달콤한 어쿠스틱"(이찬동), "다양한 랩"(박현규) 등 좋아하는 장르도, 잘하는 장르도 다르지만 한 곡 안에서 네 사람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처음에 네 명의 색이 뚜렷하다 보니 잘 뭉쳐지지 않고, 장르를 정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회사에서도 시간을 길게 보고, 저희가 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다양한 장르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특색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박장현)

그래서 팀 이름도 '브로맨스'다. 남자끼리의 끈끈한 우정을 의미하는 원래 뜻에 '네 남자의 목소리(Voice)로 로맨스를 선사한다'는 뜻을 더해 만든 단어다.

"대표님이 만들어 준 이름이에요. 뜻도 좋고, 발음도 부드러워서 듣자마자 좋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형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와도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요."(이찬동)

데뷔하기까지 4년. 몇 차례 데뷔 날짜가 정해졌다가 또 미뤄지기를 반복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파구가 된 건 1년여간 홍대 앞을 중심으로 했던 '길거리 공연'이다.

"궁금했어요. 연습은 어떤 피드백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즐기고 있다는 걸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관객과 호흡하고, 노래에 호응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이찬동),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나 한 방에 꽂히는 훅, 신나는 힙합이 대세가 된 대중음악계에 보컬 그룹의 성공은 미지수다.

믿고 있는 건 "진정성"(박장현)이다. "그래도 오래 들어주시는 건 보컬 그룹의 진정성 담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하고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최근 데뷔한 그룹 브로맨스의 타이틀 곡 '여자사람친구'는 스윙감 넘치는 펑키한 리듬과 그루브한 느낌이 돋보이는 곡이다. 스탠딩 마이크로 선보이는 퍼포먼스가 특징이다.

타이틀 곡 '여자사람친구'는 스윙감 넘치는 펑키한 리듬과 그루브한 느낌이 돋보이는 곡이다. 스탠딩 마이크로 선보이는 퍼포먼스가 특징이다. 이 외에도 어반 R&B에 바탕을 둔 '오래된 연인들', 1999년 '거리의 시인들'의 노래를 재해석한 '빙', 유일한 발라드 트랙 '벌써 겨울' 등 다양한 장르가 실렸다.

앞서 히트 작곡가 김도훈이 이끄는 소속사 (주)RBW가 그룹 '마마무'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뒤 나온 후속 그룹이다. '남자 마마무'라는 수식어는 기대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브로맨스의 앞길을 좀 더 열어준 선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마무'만큼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걸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이찬동)

/김민근기자

외주제작단체 "KBS '몬스터 유니온' 설립 중단하라"

"제작사 영역을 침범하고 방송 산업을 와해하고 있다"

외주제작 3개 단체가 KBS의 자체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 설립 중단을 요구했다.

15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독립PD협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KBS가 제작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방송 산업을 와해하고 있다"며 "이는 외주 제작사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안인배 회장은"공영방송을 시작으로 SBS·MBC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 외주 제작시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일개 용역·하청업체로 전락할 드라마제작사 30여개, 예능·다큐·교양 제작사 100여개와 독립PD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장 질서를 지키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을 지적했다. 한국독립PD협회 송규학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공영성보다 시청률이 잘 나오는 돈이 되는 프로그램에만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나온다면 수신료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KBS는 이날 같은 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외주제작 3사가 '몬스터 유니온'을 통해 외주제작사와의 공동기획·공동제작을 통한 다양한 상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KBS의 진정어린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안 회장은 "'몬스터 유니온'을 세워야만 공동제작을 할 수 있냐"며 "KBS의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안 들린다. 그동안 KBS로는 왜 상생하지 않은 건지 묻고 싶다"고 코웃음을 쳤다.

이들은 또 2003년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산업의 상생을 모색한 영국을 예로 들며 정부 차원의 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주제작 3개 단체는 향후 참여연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U-12팀 일본 나이키 앤틀러스컵 참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의 12세 이하 유소년 팀이 15일 '2016 일본 나이키 앤틀러스 컵'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일본 J1 리그 가시마 앤틀러스와 팀 스폰서인 나이키가 주최하는 앤틀러스 컵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에서 열린다.

일본 내 100개의 유소년 팀 중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만 참석하는 이번 대회에 전북 U-12팀은 특별자격으로 초청 받아 본선 진출권을 얻었다. 32개 팀 중 해외 클럽은 전북 유소년 팀이 유일하다.

전북 신용주 U-12 유소년 감독은 "앞으로 팀의 미래가 될 우리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대회 결과 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눈앞의 승리보다는 성장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 기자

'밀정' 1차 예고편 공개…추석 연휴 극장가 정조준

송강호와 공유, 김지운 감독이 의기투합한 영화 '밀정'이 15일 1차 예고편을 공개하며 9월 추석 연휴 극장가 정조준에 들어갔다.

'밀정'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제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을 그린다.

송강호는 의열단 정보를 캐내는 조선인 일본 경찰 '이정출', 공유는 이정출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그에게 접근한 의열단 리더 '김우진'을 연기했다.

이번 예고편은 지난 8일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 이어 '의심하고 교란하라' '적인가 동지인가'라는 문구 아래 이정출과 김우진이 서로의 정체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모습들이 그려졌다. 한편 '밀정'에는 한지민·엄태구·신성록 등도 출연한다. 한지민은 여성 의열단원 '연계', 엄태구는 이정출과 함께 의열단 검거작전에 투입된 경찰 '하시모토'를 맡았다. 의열단의 자금책이자 김우진의 죽마고우인 '조희령'은 신성록이 책임졌다. /김민근 기자

존박, 2년만에 신곡 디지털 싱글 '네 생각' 발표

가수 존박(28)이 14일 디지털 싱글 '네 생각'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싱글 'U' 이후 2년 만의 신곡이다.

타이틀곡 '네 생각'은 브라스 사운드 편곡이 곡의 느낌을 극대화한 노래로 존박이 작사·작곡했다.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두 번째 수록곡 '하이어(Higher)'도 존박이 만들었다. 트렌디한 비트와 사운드가 팝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다.

존박은 2012년 2월 미니음반 '노크(Knock)', 2013년 정규 1집 '이너 차일드(INNER CHILD)'를 내고 활동해왔다. 특히 정규 1집에서 존박은 수록곡 5곡을 작사·작곡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각종 OST와 프로젝트 음반 등으로 음악적 지평을 넓혀왔다. 존박은 오는 15일 오후 8시 네이버 V라이브를 진행한다.

/김민근기자